

孝사상·왕도정치 포부 문화·철학적으로 승화



화성서북공심돈(왼쪽) 화성 팔달문(오른쪽 위), 화홍문.

을 뿐만 아니라 기록으로서의 역사적 가치가 크다. 수원화성은 사적 제3호로 지정 관리되고 있으며 소장 문화재로 팔달문(보물 제402호), 화서문(보물 제403호), 장안문, 공심돈 등이 있다. 수원화성은 1997년 12월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록되었다. 18세기에 완공된 짧은 역사의 유산이지만 동서양의 군사시설이론을 잘 배합시킨 독특한 성으로 서방어적 기능이 뛰어나다. 약 6km에 달하는 성벽 안에는 4개의 성문이 있으며 모든 건조물이 각기 모양과 디자인이 다르다. 행궁(行宮)은 왕이 지방에 거동할 때 임시로 머물거나 전란(戰亂), 휴양, 능원(陵園) 참배 등으로 지방에 별도로 마련한 임시 궁궐을 말한다. 그 용도에 따라서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전쟁과 같은 비상시에 위급함을 피하고 국사(國事)를 계속하기 위해 마련된 행궁으로는 강화행궁, 의주행궁, 남한산성 내의 광주부행궁 등이 있고, 온양행궁은 휴양을 목적으로 설치된 행궁으로 조선 세종 이래 역대 왕이 즐겨 찾던 곳이다. 대통령도 별장이 필요할 터인데 권위주의 타파, 특권 파괴의 분위기에 휩쓸려 있었다. 청남대는 관광지가 되었다. 다만 '안가'라는 곳은 있는 모양이니 그건 남겨 주자. 왕이 지방의 능원(陵園)에 참배할 때 머물던 행궁

수원화성, '동양성곽의 백미' ... 세계문화유산 등재도 화성행궁, 정조가 능원 참배당시 머물던 대표적 행궁

● 세계문화유산 등록 기준

- ☑️ 독특한 예술적 혹은 미적인 업적, 즉 창조적인 재능의 걸작품을 대표할 것
- ☑️ 일정한 시기에 걸쳐 혹은 세계의 한 문화권내에서 건축, 기념물조각, 정원 및 조경디자인, 관련예술 또는 인간정주 등의 결과로서 일어난 발전사항에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것
- ☑️ 독특하거나 희귀하거나 혹은 아주 오래된 것
- ☑️ 가장 특징적인 사례의 건축양식으로서 중요한 문화적, 사회적, 예술적, 과학적, 기술적 혹은 산업의 발전을 대표하는 양식
- ☑️ 중요하고 전통적인 건축양식, 건설방식 또는 인간정주의 특징적인 사례로서 자연에 의해 파괴되기 쉽거나 역행할 수 없는 사회·문화적 혹은 경제적 변화의 영향으로 사라지기 쉬운 것
- ☑️ 역사적 중요성이나 함축성이 현저한 사상이나 신념, 사건이나 인물과 가장 중요한 연관이 있는 것 현재 한국에는 유네스코에 실사를 거쳐 세계 문화유산으로 등록된 것으로는 창덕궁, 수원화성, 석굴암과 불국사, 해인사 장경판전, 종묘, 경주 역사지구, 고창 화순 강화의 고인돌 유적, 훈민정음, 조선왕조실록, 직지심제요결, 승정원일기, 종묘제례 및 종묘제례악, 판소리 등이 있다. 조선 왕릉도 세계 문화유산으로 등록될 수 있도록 추진 중이다.

50 정조의 건릉 <2>

옹건릉, 수원 화성과 행궁 그리고 용주사는 정서적으로 한 덩어리다. 정조의 흥과 열정이 담겨 전해지는 곳이다. 답사의 방향을 수원으로 잡았다면 이 세 곳을 필히 둘러보아야 한다. 수원 화성은 정조의 효심이 축성의 근본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당쟁에 의한 당파정치 근절과 강력한 왕도정치의 실현을 위한 원대한 정치적 포부가 담긴 정치구상의 중심지로 지어진 것이다. 아울러 수도 한양 남쪽의 국방요새로 활용하기 위한 포석도 내포되어 있다. 수원화성은 규장각 문신 정약용이 동서양의 기술을 참고하여 만든 <성화주략> (1793년)을 지침서로 하여, 재상을 지낸 영종추부사 채제공의 총괄 아래 조신태의 지휘로 1794년 1월 착공에 들어가 1796년 9월 완공했다. 축성 시에 거중기, 녹로 등 새로운 장비를 고안하여 사용했다. 성벽에 필요한 장대한 석재 등을 옮기고 쌓는데 이용했다. 이러한 장비는 공사기간의 단축, 인부들의 노력과 위험을 감소시키는데 큰 역할을 했다. 수원화성 축성과 함께 부속시설들로 화성행궁, 중포

사, 내포사, 사직단 등 많은 시설물을 건립하였으나 한국전쟁으로 소멸되고 현재 화성행궁의 일부인 낙남헌만 남아있던 것을 최근에 복원했다. 수원화성은 축조이후 일제 강점기를 지나 한국전쟁을 겪으면서 성곽의 일부가 파손·손실되었으나 1975~1979년까지 축성지후 발굴된 <화성성역의궤>에 의거하여 대부분 축성 당시 모습대로 보수·복원했다. 성의 둘레는 5744m, 면적은 130ha로 동쪽지형은 평지를 이루고, 서쪽은 팔달산에 걸쳐 있는 평산성 형태다. 성의 시설물은 문루 4, 수문 2, 공심돈 3, 장대 2, 노대 2, 포(鋪)루 5, 포(砲)루 5, 각루 4, 암문 5, 봉돈 1, 적대 4, 치성 9, 은구 2 등 총 48개의 시설물로 일곽을 이루고 있으나 이 중 수해와 전란으로 7개 시설물(수문 1, 공심돈 1, 암문 1, 적대 2, 은구 2)이 소멸되고 4개 시설물이 현존하고 있다. 수원화성은 축성시의 성곽이 거의 원형대로 보존되어 있을 뿐 아니라, 복수문(화홍문)을 통해 흐르던 수원천이 현재에도 그대로 흐르고 있다. 팔달문과 장안문, 화성행궁과 창룡문을 잇는 가로망이 현재에도 도시 내부 가로망 구성의 주요 골격을 유지하고 있는 등 200년 전 성의 골격이 그대로 현존하고 있다.

축성의 동기가 군사적 목적보다는 정치·경제적 측면과 부모에 대한 효심으로 성곽자체가 '효' 사상이라는 동양의 철학을 담고 있어 문화적 가치 외에 정신적, 철학적 가치를 지니는 성이다. 수원화성은 중국, 일본 등지에서 찾아볼 수 없는 평산성의 형태로 군사적 방어기능과 상업적 기능을 함께 보유하고 있다. 시설의 기능이 가장 과학적이고 합리적이며, 실용적인 구조로 되어 있는 동양 성곽의 백미라 할 수 있다. 성벽은 외측만 쌓아올리고 내측은 자연지세를 이용해 흙을 뜯어 메우는 외축내타의 축성술로 자연과 조화를 이루는 성곽을 만들었다. 또한 수원 화성은 철학적 논쟁 대신에 백성의 현실생활 속에서 학문의 실천과제를 찾으려고 노력한 실학사상의 영향으로 벽돌과 석재를 혼용한 축성법, 현안·누조의 고안, 거중기의 발명, 목재와 벽돌의 조화를 이룬 축성방법 등은 동양성곽 축성술의 결정체로서 회대의 수작이다. 특히, 당대학자들이 충분한 연구와 치밀한 계획에 의해 동서양 축성술을 집약하여 축성하였기 때문에 건축사적 의의가 매우 크다. 축성 후 1801년에 발간된 <화성성역의궤>에는 축성계획, 제도, 법식뿐 아니라 동원된 인력의 인적 사항, 재료의 출처 및 용도, 예산 및 임금계산, 시공 기계, 재료가공법, 공사일지 등이 상세히 기록되어 있어 성곽축성 등 건축사에 큰 발자취를 남기고 있

이 바로 화성행궁이다. 정조는 아버지 사도세자의 묘소를 현릉원으로 이장하면서 수원 신도시를 건설하고 성곽을 축조했으며 1790년에서 1795년(정조 14~19년)에 이르러까지 서울에서 수원에 이르는 중요 경유지에 관천행궁, 안양행궁, 사근참행궁, 시흥행궁, 안산행궁, 화성행궁 등을 설치했다. 기하 편집증적인 효성이다. 그 중에서도 화성행궁은 규모나 기능면에서 단연 으뜸으로 뽑히는 대표적인 행궁이다. 화성행궁은 평상시에는 화성부 유수(留守)가 집무하는 관청으로도 활용했다. 정조는 1789년 10월에 이루어진 현릉원 천봉 이후 이듬해 2월부터 1800년(정조 24년) 1월까지 11년간 12차에 걸친 능행(陵幸)을 거행하였다. 이때마다 화성행궁에 머물면서 여러 가지 행사를 거행했다. 정조가 승하한 뒤 순조(純祖) 1년(1801) 행궁 옆에 화령전(華寧殿)을 건립하여 정조의 진영(眞影)을 봉안했다. 어전에서 일은 복장이 아닌 군복 입은 진영이다. 드라마 '이산'에서 끝까지 나들이할 때 정조의 복장은 이 진영을 참조하여 복원했다. 그 뒤 순조, 현종, 고종 등 역대 왕들이 이곳에서 머물렀다. 화성행궁은 성곽과 더불어 단순한 건축 조형물이 아니라, 개화적인 계몽군주 정조가 지향하던 왕권강화정책의 상징물로 정치적, 군사적인 큰 의미를 지니고 있다. 글=이우상(소셜가 asdfang@hanmail.net), 사진=최진연(사진작가)

장사 성공의 법구 금강삼고저

안되는 장사, 안되는 사업, 산재 사고도 예방



개업 선물로도 품격! 사업 성공의 선물로도 품격!
이 헛손님이 되면 하루종일 헛손님으로 장사를 힘들게 잡기가 조화를 부린다. 부처님법구인 금강삼고저는 밀교법구로 만사를 방해하는 악귀와 잡귀가 보이기만 해도 도망가고 화로부터 사업장의 안전을 지키며 사업장의 성공을 위해 동서사방에서 인연의 귀인들을 불러드리는 영험의 법구로 우리나라에서는 고려시대부터 조선시대 거상들이 사업장에 걸어 놓았던 금강삼고저를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유물로 볼 수 있다. 경제대국 일본의 각종 식당과 점포, 각종 사업장, 산재위험이 있는 사업장 등에 금강삼고저가 걸려 있는 것을 쉽게 볼 수 있다. 불심사에서 장사용 왕망 사업변장과 산재예방의 축원불공을 마치고 시판하는 금강삼고저는 가로8cm 세로3.5cm에 벽에 걸기 고리와 수술이 달려있어 사업장 문안쪽 위에 걸어 놓으면 금기로 제작해 품위도 있다. 전화로 신청하시면 택배로 보내드립니다. 보시가격: 85,000원 (신용카드 분할가) 문의(02)741-4488 동협032-12-193445 이상하

장사와 사업 흥왕의 비방 법구
석당, 기둥, 의류점, 보석상, 부동산중개소, 미미종실, 목욕탕, 다방, 정육점, 노래방, 주점, 모텔, 여관, 병원, 각종학원, PC방, 당구장, 서점, 인쇄소, 문방구, 기원, 복권방, 각종스포츠타, 핸드폰점, 분당사무소, 안경점, 신발매장, 전자제품매장, 미국상, 방앗간, 공점, 주유소, 산재사고 위험사업장 등 어려운 사업장의 비방.

영험의 구슬 보궁여의주

필승합격과 승진의 영험



여의주는 글자 그대로 원하는 것이 이루어 진다는 구슬이다. 전설에 따르면 아들형제를 데리고 어렵게 살아가는 어머니가 남섬부주 바닷가에 떨어져 있는 구슬두개를 너무나 아릅답고 신비해 집에 가져왔다. 집에는 관료가 되어 어머니를 편히 모시겠다는 형제가 시험만 보면 번번이 낙방을 하며 세월만 보내고 있었다. 아들에게 집에 오는길에 예쁜 구슬을 주겠다고 보여주었다. 구슬을 본 형제는 참 신비한 구슬 갖어요, 어머니는 아들 형제

에게 하나씩 주었다. 그후 매년 낙방하던 형제가 그해 관료에 등과되어 어머니는 소원을 이루고 건강장수 하고 관료가 된 형제는 큰 공덕을 쌓으며더부룩하게 살았다고 한다. 각종 불경 해석서를 보면 제석천왕과 아수라가 싸울때와 전륜성왕이 바위를 부술때에 남섬부주에 떨어져 변한것이라고도하고 용왕의 몸에서 나와 사람이 여의주를 집안에 두고만 있어도 독이 해질수 없고 불속에 있어도 타지않고 권세와 명예를 얻는 공덕이 있다. 구슬로 사갈라 용궁에도 있고 여의의 관세음부처님 두손에도 들고있어 중생들이 뜻한바가 이루어지는 비방의 법구로 삼고 있다. 시험을 보고나면 꼭 1-2점차로 낙방을 한다. 수험생들은 한두문

다라니 福 지갑

원하는 재물을 얻고 원하는 계획이 성취되는 영험

라니복지갑은 동서사방에서 돈이 들어오게 하는 비방의 법구와 막혔던 모든 문제를 해결되게 하는 영험의 법구가 들어 있으며 음양의 조화로 원하는 소원이 성취되게 왕진언이 지갑 앞면에 들어있다. 고급소가죽에 금나노, 은나노 처리까지한 일반 지갑과는 비교될 수 없게 내부도 잘 꾸며져 있고 불광사에서 지갑 사용하실 분의 물질의 소원과 원대한 계획이 성공되게 생년월일을 알려주면 100원 축원불공을 해드립니다. 남성용 금나노 반지갑 65,000원 여성용은나노장지갑95,000원 전화로 신청하시면 택배로 보내 드립니다. (신용카드 분할가) 문의(02)741-4488 동협032-12-193445 이상하

평생부자지갑

소중한 남편과 자녀에게 성공의 선물, 소중한 아내에게 부와 사랑의 선물



부처님법구에는 세상사는 동안 물질의 고통을 소멸하고 평생부자로 살아가는 대비신력(大悲神力)의 법구가 있는데도 미련한 중생이 깨닫지 못하고 법구가 무언지도 모르고 고통속에 살아간다. 불가에서는 연인법과 물연법을 중요시 한다. 돈의 집인 지갑에서 연이되면 돈이 동서 사방에서 들어오지만 연이 안되는 지갑은 돈을 들어오지 않고 고통만준다. 불경, 다라니의 근본은 신묘장구(神妙章句)로 글자 그대로 신묘하게 묘한일이 일어나 해결된다는 뜻이다. 집안불공과 축원불공을 마친 다